

스마트하게 만나는 <굿모닝인천>
웹진 : goodmorning.incheon.go.kr / 전자책 :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

굿모닝인천
인천광역시 시정 소식지
INCHEON MONTHLY MAGAZINE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인천의 다양한 매력과
인천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 담긴
이야기 보물창고.
1994년부터 시민과 함께해 온 <굿모닝인천>이
300만 인천 시민 모두를
독자로 모십니다.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08
AUGUST

여덟 번째 길
어머니의 인생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보고
싶다.

SINCE 1994

신규 독자를 위한 이벤트

<굿모닝인천>이 인천 시민 100명에게 씁니다!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 '구독 신청'란을 통해
신규 구독 신청하고, 인천시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선착순 100분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독 신청 후, '하고 싶은 말'란에 [보고싶다]를 적고 인천시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신청자에 한해 상품권이 지급됩니다.(기 신청자 제외)



선재도-노을
72.2×60.6cm oil on canvas 2017

선녀가 춤추는 섬, 선재도(仙才島)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작은 섬,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는 듯이 아름다워 선재도(仙才島)라 불리는 섬.

외국 유명 방송사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을 만큼, 곱디고운 모래 옷을 입은 섬.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려 목섬과 측도로 이어지는 기적의 섬.

해 질 무렵, 외길 모래사장 위로 바닷물이 찰랑거리면
긴 머리카락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춤사위가 펼쳐져
잠든 영혼마저 흥에 겨워 깨어날 듯한 섬.

말 그대로, 선재(仙才)에 영흥(靈興)이다.

고제민 작가 인천 출생(1960), 서울예술고, 덕성여대 서양화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현) 인천영화관광경영고 재직, 한국미술협회 회원, 개인전 6회, 부스전 5회, 단체전 및 해외전 다수, 「엄마가 된 바다」(2015) 「인천의 항구와 섬」(2013) 출간

발행처 인천광역시__발행일 2017년 8월 1일__발행인 인천광역시장__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__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__사진 김성환·류창현·홍승훈·최준근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__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INCHEON MONTHLY MAGAZINE__2017 AUGUST__VOL. 284



표지사진 류창현

여덟 번째 길;
어머니의 인생
(백령도 해녀 김호순)

06_기획 특집 백령 해녀 12_드론 찰칵, 달리 본다 물푸레섬과 간데섬 16_해양레저 명소 왕산마리나

20_동계올림픽의 요람 선학국제빙상경기장 24_테이스티 로드 인천 냉면 30_광복 72주년 임시정부와 함께한 <제시 이야기>

34_시민 행복+ 스마트 안전망 구축 38_화제의 인물 대한민국 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이병철

42_박물관 이야기 발굴 44_문화 캘린더 썸머페스티벌 루체뮤직 소사이어티의 <발레모음곡> 외

46_시정 뉴스 환황해권 경제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난다 외 50_의정 뉴스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의회와 우호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외

52_컬러링.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54_Info Box 인천대공원 8월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안내 외

57_인천의 생물 이야기 길 잃은 새야, 소청도에서 잠시 쉬었다 가렴 58_모닝 커피 한잔 59_몽(夢)땅 인천 골목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 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 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 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인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께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궁금할 땐 언제나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정부 알리미 서비스인 ‘정보공개 3.0’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
신’입니다. 인천시청(www.incheon.go.kr) 홈페이지 → 행정 → 정부
3.0에서 확인하세요.

연수구 주민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홈페이지(www.idolbom. go.kr)에서 신청했는데 정부 미 지원 대상자라고 하네요

정부 미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851-2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강화 석모도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다리가 연결된 것으로 압니다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가 지난 6월 28일 개통했습니다. 길
이 1.54km, 폭 12m의 왕복 2차선 대교로 외포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
고 가던 것을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석모도는 자연 휴양림과 천년 고찰 보문사, 미네랄온천 등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미추홀참물 홍보관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남동정수사업소 내에 있는 미추홀참물 홍보관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관한 물홍보관입니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
깨우고 이해를 돕는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 산업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리모
텔링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참물홍보관
(☎ 720-2661)으로 문의하세요.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시민 소통



제8기 시민감사관 모집

나도 ‘인천시 감사관’!

우리 시가 제8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시민감사관은 시민
불편·불만사항과 위법 부당한 행정 등을 제보하
고,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종합감사에
참여해 감사움부즈만 업무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인천시 관내 군·구별 10명 이
내로 총 100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아래
와 같다.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행정 각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시민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시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한 사명
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시민.
위 자격을 갖췄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
고된 ‘제8기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문’의 첨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
메일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제7기 시민감사관들은 현재까지 시민 불
편 사항 등 총 116건을 제보·건의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시정 운영을 선도했으며, 20개 기관 중
합감사에 총 38명이 참여해 시민 참여형 감사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문의 : 시 감사관실 ☎ 440-3135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을 타고 떠나는 여행

독자 최원근(28·연수구 연수3동)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앞으로도 인천에서 멋진 삶을 펼쳐갈
28년차 ‘인천인’ 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비록 예전만은 못하지만, 평범한 직장인
으로 쫓기듯 살아가는 지금도 짬짬이 저만의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은 제게 배움이었습니다. 물질적 소유보다는 내면의 풍성함을, 남보다 빨라
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반 박자 느린 침착함을, 나보다 남을 배려했을 때의 한
없는 기쁨 등 매순간이 깨달음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또 하나의 배움이 되어준 것이 <굿모닝인천>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웹 서핑을 즐기던 어느 날, 인터넷 배너를 타고 등장한 <굿모닝인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이라는 두 글자에 본능적으로 이끌린 저는 그때 처음
<굿모닝인천>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접한 <굿모닝인천>에는 내가 밟고 선 이 땅 인천의 다양한 모
습들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겐 새로운 여행지의 위시리
스트로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 ‘여행을 떠날릴 때 왜 항상 먼 곳만
을 바라봤을까’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란 자부심이 웬지 모를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인천이 그토록 경이로운 풍경을 가진 곳
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책 뒷면 광고에 적혀 있는 문구 그대로, 인천은 ‘보물창고’
였습니다. 덕분에 고민거리 하나를 덜었습니다. 곧 떠날 여름휴가 장소가 아주 쉽
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울여름, 저는 인천 섬으로 떠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굿모닝인천>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우리 사는 인천이 가진 진면목을 제대로 느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굿모닝
인천>을 통해 인천이란 도시가 가진 가치와 아름다움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인천>!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늙은 어머니는 오늘도 물속 깊이 뛰어든다.
차디찬 바다에서 뜨거운 눈물 삼키며
삶과 죽음 사이를 자맥질한다. “휘이, 휘이 ….”
어머니가 바닷속에서 꼭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쏟아낸다.
‘죽으러 들어가서 살아 나온다’고 했다.
해녀라고 해서 어찌 바다가 춥고 두렵지 않으랴.
그럼에도 기어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건,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어머니의 이름으로 ————— 바다에 뛰어든다

어머니는 열다섯 되던 해에, 밥해 먹을 보리쌀을 짚어지고
 제주도에서 처음 육지로 나왔다.
 울산에서 시작해 여수, 백령도에 이르기까지, 온 바다를 떠돌았다.
 그렇게 평생 거친 파도 맞으며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어갔다.



— 태어난 순간,
 ‘해녀’로 정해진 운명 —



내년이면 딱 일흔이 된다. 늙은 어미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다.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허나 신기하게도 물에만 들어가면 훨훨 날아다닌다. “물속에선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어머니는 ‘해녀’다. 김호순(69) 할머니는 아홉 살 때부터 물질을 했다. 바닷가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친구들과 술래잡기하며 자연스레 잠수를 배웠다. 작고 여린 손으로 미역이며 우뚝가사리를 캐 공책과 연필을 사고, 집안 살림을 보탤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 어머니도 해녀였다. 제주 바다에서 태어난 순간, 억척스러운 섬 여자의 인생을 대물림 받았다. 그렇게 평생 해녀의 삶을 숙명처럼 짚어지고 살아왔다. “딴 건 다 몰라도, 나 어릴 때 잠수하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 노쇠한 어머니는 순간순간 기억을 놓치지만, 처음 온몸의 감각을 깨우던 물의 감촉만큼은 결코 잊지 못한다. 지금도 육지보다 물속에 있는 게 마음 편하다. 바다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바다를 마시고, 바다에서 살다, 다시 바다로 돌아갈 것이다.



열다섯 되던 해에, 제주도에서 처음 육지로 나왔다. 꽃 피는 봄이었다. 동네 해녀들과 밥해 먹을 보리쌀 스무 말을 짊어지고 물으로 물질을 하러 나섰다. 남쪽 나라 해녀들의 원정이었다. 울산에서 시작해 여수, 백령도에 이르기까지…. 바다가 있다면 어디든 갔다.

백령도에는 30여 년 전에 왔다. 멀고도 먼 여정이었다. 제주도에서 인천까지는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거리인데, 육지에서 섬까지 뱃길로 열두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다다른 최북단 서쪽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다.

“바닥에 전복이며 해삼이 짝 깔린 거야. 거기에 반해서 내 여태껏 살고 있어.” 서쪽 바다에 마음을 빼앗긴 어머니는 백령도를 고향 삼아 눌러앉았다. 예서 결혼해 터를 잡고, 제주도에 살던 자식도 하나둘 불러들였다.

“땡달아 나까지 와버렸지 뭐야. 여기가 좋대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효자는 못 돼도 남은 생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의 만아들은 제주도에서 술장사를 하다 섬으로 흘러들어 왔다. 잠시 쉬었다 간다는 게 18년이 지났다. 그는 열다섯 이후로 어머니와 살 부비며 산 적이 없다. 온 바다를 떠돌던 어머니 곁을 이제야 지키게 됐으니, 차마 떠날 수가 없다.

“잠수 조금 해서 밥이나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뿔하러 만나려고.” 해녀 김호순은 처음엔 만나기를 한사코 거절했다. 하지만 정 많은 어머니는 우리를 배에 태워주고, 두무진 일대를 구경시켜주까지 했다.

어머니는 오늘도 ‘망사리’가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바다로 나선다.



어머니는 오늘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물살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바다는 좀처럼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서해는 더 야멸치다. 하루 두 번 밀물이 차오르고 썰물이 질 때 딱 한 시간만 품을 허락한다. 그나마 물발이 세면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준다. 또 갯벌을 가득 머금고 있어 바로 앞 시야도 가로막아 버린다. “서해는 험하기 짝이 없어. 또 물속 날씨란 게 그때그때 달라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지. 하지만 괜찮아. 아무리 바람 불고 물속이 캄캄해도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해녀라고 해서 어찌 바다가 춥고 두렵지 않으랴.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숨이 넘어가고 온몸이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하지만 천직이라 여기고, 자식을 떠올리면 힘든 게 없었다. 거친 파도 맞으며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망사리가 묵직하게 채워지면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사내들은 못 따라가요.” 어머니는 수심 25미터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 삶의 희망을 캔다. 백령도에서 가장 젊은 해남인 사위 윤학진(43) 씨도 20미터 이상은 간 적이 없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평생을 물속에서 살아온 세월. 척박한 환경이지만 가난을 탓하지도 지켜만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곱던 얼굴에 깊게 주름 파인 어머니는,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거친 바다로 뛰어든다.

어머니를 따라, 8년 전 제주도에서 백령도로 온 사위 윤학진 씨. 사이좋은 아들과 어머니 같다.





영종대교와 정도(아래), 범섬(위)

떨린 섬이 더 예쁘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40개이며 나머지 128개는 무인도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 일부러 무인도 표류를 꿈꾼다. 무인도는 판타지와 노스텔지어를 동시에 맞볼 수 있는 공간이다.

드론 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소야도 기도(아래), 간데섬(중간), 물푸레섬(위)





선재도 땀두부리섬



무인도는 대개 큰 섬에 딸려 있다. 한 몸이었다가 두세 개로 떨어져 나갔거나 애초부터 홀로 떠 있다. 노랑섬, 수수떼기섬, 조름섬, 해녀도, 켜섬, 지내섬, 호도, 함박도, 괴리섬, 돌섬, 대섬, 동그랑섬, 날가지도, 감투섬, 모이도, 책도, 구지도, 각홀도, 곰바위섬, 까마귀섬, 벌섬, 닭섬, 토끼섬, 뭉통도, 동글섬, 박쥐섬, 깨진섬... 무인도일지라도 모두 이름은 갖고 있다. 그 이름은 섬사람들이 지어주었을 것이다. 작명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툭 던졌을 것이다. 전국에는 무인도 2천600여 개가 있다. 이름조차 없는 섬이 수도룩하다. 인천 섬들은 모두 ‘호적’에 올라 있다.

영흥대교와 둔두래섬



바람이 이끄는 대로

왕산마리나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으며 바다를 건너는 일, 푸른 바다 위 느긋하게 배를 띄워놓고
햇살을 만끽하는 일,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선을 이루는 고요한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맛보는 여유로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바다를 향하는 매력은 누구에게나 낭만적인 로망이다.
태양이 이글대는 오전 11시, 그 로망이 현실이 되는 왕산 마리나를 찾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자연이 주는 선물, 바다에서 낭만을 즐기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왕산해수욕장 방향으로 향한다.
왕산가족오토캠핑장을 지나 조그만 터널을 통과하면 눈앞에 펼
쳐지는 넓은 바다와 하얀색의 다양한 배들. 최근 전면 개장과 동
시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왕산마리나의 전경이 시선을 사로
잡는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요트대회가 열렸던 왕산마리
나 계류장에는 가지런히 정박한 요트들이 줄지어 있다. 하늘 위로
솟은 돛대가 마음을 들뜨게 한다.

요트 한 대가 서서히 계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시작은 바람
이 아닌 기계의 힘을 빌린다. 돛을 내린 채 동력모터로 이동하며



왕산마리나는 35피트부터 슈퍼요트 크기인 165피트까지의 선박을
계선·접안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선석을 갖췄다.

천천히 바람의 움직임을 느끼는 요트. 왕산마리나를 빠져나온
요트는 비로소 돛을 펴고 바람에 몸을 맡긴다. 일순간 주위가
고요해지고, 기분 좋은 파도의 출렁거림과 불어오는 바람에 마
음 가득 평안함이 몰려온다. “요트는 몇 년 전부터 취미로 시작
했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어야 하는 요트는
다른 배와 달리 여유로움과 동시에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국 마리나를 이용했는데, 지난해 왕산 마리
나가 임시 개장했을 때부터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일
링의 매력은 ‘무념무상(無念無想)’이라는 김정무(서울 종로구·
46) 씨는 서울과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왕산 마리나가 있어 편
해졌다고 말한다.



주변 항해 코스

- 장봉도 — 편도 8km
- 영흥도 — 편도 22km
- 자월도 — 편도 22km
- 이작도 — 편도 33km
- 덕적도 — 편도 30km

[왕산마리나]

위치 : 중구 을왕동 980(왕산해수욕장 옆)
선석 : 해상 266석, 육상 34석
시설현황 : 선박주유소, 크레인, 선양장(Slipway),
페데스탈, 오수펌프, 소화전, 구명환, 밧줄 등
문의 : ☎ 202-9960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진 왕산마리나

‘마리나(Marina)’는 해양관광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계류시키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레저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전면 개장한 왕산마리나는 인천시와 대한항공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지원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에 266선석 해상계류장과 34선석 육상계류장 등 요트 300척을 정박할 수 있도록 조성한 국내 최대 마리나 단지다. 특히, 왕산마리나는 100피트 이상의 슈퍼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계류장이기도 하다.

“세계 어느 마리나도 왕산마리나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은 드뭅니다. 해양에 조성되어 있어 바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 덕분에 교통 체증 없이 서울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면서 공항과 가까워 외국인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죠. 마리나가 갖춰야 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왕산마리나의 박효빈 씨(30)는 365일 입출항이 가능한 우수한 시설과 서해 조망으로 수도권에서 요트와 보트를 즐기는 해양레저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덧붙인다.

보트 300척 품은 최고의 해양레저 명소

왕산마리나는 전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입지를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은 미비한 상태라 조금은 아쉽다. 하지만 몇 년 내로 그 아쉬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왕산레저개발은 연내 건축물 개조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F&B(레스토랑, 카페) 및 요트 관련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왕산마리나 일대에 숙박·판매시설, 요트 수리시설·클럽하우스 등을 조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왕산마리나는 바다로의 접근성이 좋고, 365일 입·출항이 가능해 수도권에서 요트나 보트를 즐기는 해양레포츠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가깝다는 이점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천에서 배로 부산 가는 것보다 중국 가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왕산마리나 이용에 대한 문의를 받곤 하는데, 공항이 가깝고 외국인 대상 카지노도 있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일링, 섬 투어, 바다낚시, 선상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적극 유치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요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6 인천-위해 한중 요트경기대회 진행을 통해 시설의 우수성을 입증한 왕산마리나. 향후 이곳은 다양한 요트 경기 개최, 지속적인 관광·관광객 유치를 통해 해양레저 스포츠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앵커 시설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또 주변에 위치한 관광지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인천 지역 관광 수요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의 꿈, 인천에서 평창까지

한낮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힌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은 정반대. 영하의 온도다. 그렇다고 마냥 좋을 리만은 없다. 인천에서 하나뿐인 아이스링크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이곳에서 동계 스포츠 종목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등골이 오싹할 만큼 차가운 빙판 위에서, 지금 올림픽을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한창인 선수들의 에너지가 한여름 더위를 모두 날려버릴 기세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선학에서 다진 각오,
평창까지 잇는다



서늘한 빙상 위에 뜨거운 숨결이 느껴진다. 헬멧 실드 사이로 오가는 날카로운 교감, 허를 찌르는 슈팅, 강렬한 몸싸움 그리고 짜릿한 승리... “아이스하키는 전쟁이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는 인천을 연고로 활동 중인 ‘대명 킬러웨일즈’의 훈련이 한창이다. 지난 6월부터 ‘대명 킬러웨일즈’의 지도를 맡고 있는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지도자 출신인 케빈 콘스탄틴(59·미국) 신임 감독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운다.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오현호, 이영준, 김범진, 브라이언영도 태릉선수촌 입촌을 앞두고 펼쳐진 마지막 팀 훈련 주간을 맞아 동료들과 비지땀을 흘렸다. 외투를 걸쳐야 견딜 만한 링크에서 훈련했는데도 모두 땀에 절었다. 특히,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올여름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선 마지막 비시즌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진다. 이영준(26) 선수는 “대명의 연고지가 제 고향인 인천이라 친근하게 느껴진다.”며, “올해 9월부터 선학경기장에서 시작하는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대명킬러웨일즈 아이스하키단이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의 명장 케빈 콘스탄틴 감독을 영입하고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는 등 막강 전력으로 빙판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요람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다부진 컬링 꿈나무,
인천 첫 금메달 넘어
올림픽 꿈꾼다



둥글고 묵직한 스톤이 ‘스윙’ 빙판 위로 미끄러진다. 저 혼자 쪽쪽 나아가는 스톤은 또 다른 스톤을 힘차게 튕겨버린다.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인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는 스톤이 스트라이크로 쓰러지는 볼링핀처럼 통쾌해지는 순간이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지하 1층에는 ‘얼음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을 즐길 수 있는 전용경기장이 있다. 때마침 지난 6월 ‘2017년 서울시장배 국제휠체어컬링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인천시장에인체육회 휠체어 컬링팀의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컬링장은 인천 선학, 경북 의성, 태능, 인천에만 있습니다. 인천에 컬링장이 있다는 게 선수들에겐 큰 장점이지요.” 최민석 컬링 감독은 “컬링은 3~4시간의 기본교육만 받으면 경기를 직접 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좋은 스포츠라고 말한다.

한편 인천 선인중학교는 지난 2월에 열린 제98회 동계체육대회 컬링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동계체전 컬링 종목 사상 인천의 첫 번째 금메달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컬링장에서는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어린 친구들의 치열한 연습이 이어지고 있다.

반경 18m 하우스 중심에 스톤을 가까이 넣는 팀이 점수를 얻는 컬링. 마지막 스톤 하나에도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위)
인천 컬링 새역사 쓴 선인중학교 컬링팀(아래)



동계올림픽 종목, 여기서 배우자

2015년 3월에 문을 연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국제 규모의 빙상장으로, 평창올림픽 해외 참가팀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부분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지만 1층 링크는 일반 시민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 특히, 인천시체육회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꿈나무들을 배출하고 유망주들을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빙상 종목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소년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를 배우려면 일단 지역 스포츠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인천 지역에서는 현재 킬러웨일즈, 썬더스, 이글스 등 유소년 아이스하키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내년에 아이스하키 꿈나무 육성을 위해 중등부를 창단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시체육회 ☎ 899-5693

컬링 강습

컬링을 배우고 싶다면 인천시체육회의 문을 두드리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컬링 강습 회원을 모집 중이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월 2만 원의 회비로 치열한 두뇌의 싸움이 펼쳐지는 ‘컬링’의 세계를 맛 볼 수 있다.
문의 : 인천시체육회 ☎ 899-5693

스케이팅 강습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 종목에 한해 정규 강습과 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론 및 기본자세 등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다. 각 반 20명을 담임제로 교육하며, 7세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821-5723, (www.seonhakicerink.or.kr)

일일 체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일 입장이 가능하다. 3천~4천 원의 이용료와 스케이팅 대여료(3천 원)만 지불하면 3시간 정도 빙상 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또 초등~고등학생 20명 이상 최대 300명까지는 학교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강사로부터 스케이팅을 배울 수 있다.

최고의 시설,
안정적인 훈련으로 이룬
빙상 종목의 쾌거





冷麵

깊다, 냉면 한 그릇

후루룩 맛있게 한 그릇 들이켜고 끝낼 일이 아니다.
인천에는 60여 년 분단의 역사와 맞닿은 평양냉면이 있고,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던 세숫대야냉면이 있다.
깊고, 담담하면서도 풍성하다.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가 진하게 녹아 있는 냉면 한 그릇.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북
에
서
섬,
육
지
로
온
‘한
그
릇’,

인천은 깊다. 도시 곳곳에 한민족이 걸었던 굴곡의 세월이 묵묵히 배어 있다. 6·25전쟁 때도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 땅이 두 동강이 나면서 인천에 남은 이북 사람들 중에는 황해도가 고향인 사람이 많았다. 북녘 땅에서 즐겨 먹던 음식인 냉면도 함께 흘러들어 왔다.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는 황해도식 막국수인 메밀냉면이 널리 퍼져 있다. 백령도는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해 예부터 메밀 농사를 많이 지었다. 섬사람들은 그 메밀을 통째로 갈아서 반죽해 면을 만들고 까 나리 액젓으로 풍미를 더해, 이북식 전통에 섬 고유의 맛을 더한 냉면을 탄생시켰다.

“황해도의 맛이예요. 어릴 때 먹고 자란 바로 그 맛.” 닿을 수 없는 땅을 그리워하는 이는, 냉면 한 젓가락에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도 한다. 백령도에 있는 ‘사곶냉면’은 멀리 육지에서도 찾는 소문난 맛 집이다. 섬 토박이 김옥순(65) 할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손맛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돼지 뼈를 푹 우려낸 육수에 메밀 면을 말아 낸 단출한 한 그릇.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담백하면서도 맛이 깊다.

주안에 있는 ‘변가네 웅진냉면’도 백령도 출신이다. 섬이 고향인 변신목(81) 할아버지는 1977년 육지로 와 40여 년째 냉면을 맡고 있다. “나 어릴 때 백령도에서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다들 냉면을 해 먹었어. 냉면이라면 집집마다 다 한 솥씨 했지.” 국물은 갓 갈거나 도정했을 때 최고의 맛을 낸다. 이 집 냉면은 메밀을 그때그때 빵아서 손수 반죽해 면을 뽑아 메밀 향이 진하다. 부드러운 메밀 면과 구수한 육수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번진다. 백령도 뜨거운 여름 한낮, 평상에 걸터앉아 후루룩 마시던 냉면이 이 맛이었으리라.





소고기 설깃살을 6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를 적혀 붉은 면이 '경인면옥'이다. '경인면옥'은 이면 금불교의 전통 요리다.

질곡의 역사 담담히 품은
‘한 그릇,’



이북식 전통에 섬 고유의 맛을 더한 백령도 ‘사곳냉면’

60여 년 분단의 역사를 지나온 냉면집이 또 있다. 70여 년 전통의 평양냉면집인 ‘경인면옥’이다. 평안도가 고향인 고 임금옥 할머니는 광복을 앞둔 1944년에 서울 종로로 내려와 냉면집을 하다 인천으로 터를 넓혔다. 당시 가장 변화한 중구 신포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서울과는 달리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다소 습습한 육수 맛이 인천 사람 입맛에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6·25전쟁이 끝나고 이북 사람이 몰려들면서 냉면집은 북새통을 이뤘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냉면집에서 다시 고향을 찾은 것이다.

경인면옥은 현재 손자 함중옥(49) 씨가 대를 이어가고 있다. 함께 식당을 꾸리던 아버지 함원봉(72) 씨는 지난해에야 아들에게 육수 만드는 비법을 전수했다. “우리는 순수하게 소고기만 써. 일절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늘 강조하셨지.” 소고기 설깃살을 6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는 깊으면서도 맑고 고요하다. 그 맛의 묘미를 모르고 “맹물을 무슨 맛으로 먹느냐.”며 화를 내는 손님도 더러 있다. 하지만 가게 한편에 걸린 문구처럼 ‘정말 좋은 것은 반드시 담백한 것’이 아니던가.

“저희 집 손님들은 ‘처음엔 긴가민가하고, 두 번째는 맛을 알고, 세 번째 먹으면 육수의 참맛을 안다’고들 하세요.” 평안도에서 인천으로 삼대째 이어온 손맛은, 가뭇하다가도 한번 맛 들면 자기 전에도 번뜩 생각나 다음 날 찾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

세상에 없던 단 한 그릇,

6·25전쟁이 끝나고 인천의 공장들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노동자들에게 국수는 부담 없이 허기를 채우는 한 끼 식사로 딱이었다. 귀한 소고기로 육수를 낼 수 없으니 갖가지 재료에 고추장 양념으로 맛을 내고, 세숫대야처럼 생긴 큰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냈다. 인천 출신 화평동 ‘세숫대야냉면’은 그렇게 태어났다.

화평동 냉면 거리는 1980년대 초반 인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생겨났다. 구두를 만들던 김 씨, 양복을 짓던 박 씨, 포장마차를 하던 선미네가 만나 자연스레 골목을 이뤘다. ‘아저씨 냉면’의 김용만(66) 씨는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냉면을 팔았다고 자신 있게 간판을 내걸었다. “경인면옥이 4천500원에 냉면을 팔 때 500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인근 공장과 인천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냉면집으로 몰려들었다. 한창때는 새벽 동틀 무렵부터 가게 앞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우리 가게에서 줄 서다 보면 이산가족도 만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허허.”

전성기는 끝이 났다.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북적이던 냉면집은 반으로 줄어 이제 10여 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마저도 곧 불어닥칠 재개발 바람 앞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 “모든 게 영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골목도 곧 사라질 거예요.” 호기롭게 세숫대야냉면의 역사를 시작한 청년은 ‘아저씨’에서 어느덧 할아버지가 됐다. 세상에 없던 냉면이, 세상에서 없어질 날이 머지 않은 걸까. 부디 그 안타까운 예감이 어긋나길 바란다.



화평동 세숫대야냉면의 시초인 ‘아저씨 냉면’의 역사를 잇고 있는 아들. 원래 학교 체육선생님이었다.



인천 냉면집 5

황해도식 메밀냉면
사긋냉면

메밀로 만든 까만 면발에 쫄면 사골 국물로 맛을 낸 백령도 냉면. 처음엔 낯설지만, 한번 젓가락질 하면 멈출 수가 없다. 백령도 토박이인 김옥순 할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손맛을 며느리와 함께 이어가고 있다. 이 집 돼지수육도 소문이 자자하다. 살점이 야들야들해 몇 번 씹지 않아도 목구멍으로 후루룩 빨려 들어간다. ☎ 836-0559



황해도식 메밀냉면
변가네 웅진냉면

1977년 역사를 시작한 백령도 출신 냉면집. 주인 어르신께 긴 세월 문전성시를 이루는 비결을 물으니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먹지.”라고 답한다. 무뎡뎡해도 정이 깊고 맛도 깊다. 메밀을 바로 빵아 만든 면과 한우 뼈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환상적인 궁합을 이룬다. 여기에 지글지글 바로 구워낸 두툽한 녹두부침개까지 더하면 마음까지 꼭 찬다. ☎ 875-0410



평양냉면
경인면옥

평양식 냉면은 6·25 전쟁 이후 서울에서 발달했지만, 인천에도 그 못지않게 이름난 냉면집이 있다. 경인면옥은 1944년 서울 종로에서 시작해 1946년 신포동에서 역사를 이어왔다. 오로지 소고기만으로 맛을 낸 육수는 그 맛이 담백하면서도 깊고 풍부하다. 60여 년 분단의 세월을 지나온 이 집 냉면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 762-5770



화평동 수박냉면
일미 화평동 냉면

세숫대야냉면의 명성에 버금가는 수박냉면이 태어난 곳. 화평동 냉면거리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과즙이 철철 흐르는 빨간 속살에 파고든 냉면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송송 썰어 듬뿍 올린 야채와 탕탕한 면발에 고추장 양념을 쓱쓱 비벼 먹는 맛이란. 비빔냉면의 매콤함과 수박의 시원함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자아낸다. ☎ 772-0040



화평동 세숫대야냉면
아저씨 냉면

‘아저씨 냉면’은 화평동 세숫대야냉면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있다. 테이블 두 개를 놓고 시작했지만, 밀려드는 배달을 감당 못해 전화기 코드를 뽑아놓을 정도로 잘나갔었다. 고명이라곤 계란 반쪽에 열무김치가 다인데,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물냉면이든 비빔냉면이든 한 그릇에 5천 원. 가격과 양에 있어서도 따라올 것이 없다. ☎ 765-3553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의 육아 일기



한국판 ‘안네의 일기’라 할 수 있는 <제시 이야기>는 1938년 중국 장사(長沙)에서 시작되어 광복 후 한국할 때까지 8년간 이어진 일기다. 성장과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 육아 기록이지만 당시 임시정부 가족들의 생활상과 독립운동가들의 따뜻한 인간애, 해방의 감격을 녹여내고 있다. 주인공 제시의 부모는 인천과 인연이 각별하다. 일기를 쓴 모친 최선화는 인천에서 출생했으며, 부친 양우조는 광복 후 인천 제마방직회사에서 근무했다.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그림 제공 우리나비



부부 독립운동가의 딸 제시

일기는 1938년 7월 4일 딸 ‘제시’의 출생으로 문을 연다. 1919년 3·1운동 직후 일본 식민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1945년 8·15 광복까지 상하이(1919)·항저우(1932)·전장(1935)·창사(1937)·광저우(1938)·류저우(1938)·치장(1939)·충칭(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임시정부가 중국 대륙의 동쪽 전장에서 동맹호를 거쳐 창사에 도착한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12월. 이듬해 그곳에서 이탈리아 의사, 프랑스 수녀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바로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부부의 딸 제시. 집안의 돌림자가 ‘제’자인데 미국에서 공부한 아버지가 문득 떠올린 이름이 바로 영어 이름 제시였다. ‘아이가 자랐을 때 조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하길 바라는 마음과 아이가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인으로서 활약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은 이름이었다. 부부가 첫아이를 잉태했을 때 김구 선생은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우리 임정에 건강한 아이가 나온다.”며 부부를 요릿집에 데려갔다. 부부는 “생선 맛이 난다.”며 음식의 정체를 궁금해 했지만 백범은 끝까지 시치미를 뚝뚝 떴다. 그들이 먹은 것은 뱀으로 만든 요리였다.



2



3

- 1. 최선화, 양우조 그리고 제시
- 2. 모녀 3대. 최선화(아래), 제시(오른쪽), 김현주
- 3. 임시정부 의정원 의회 일동



<제시 이야기>는 타국 중국에서 자라는 제시를 바라보는 부모의 애절한 사랑, 독립운동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연함, 한국 동포들 사이의 따뜻한 정뿐만 아니라 한중 정치인들의 우정,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도움과 배려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료적 가치도 있다. 이 시기 임시정부 기록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일기는 중일전쟁 시기 일본의 공습을 피해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실상을 시기별로 정확히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임시정부의 행로와 중국에서의 생활, 독립에 대한 희망을 담은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 생사가 오가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삶의 열정을 꽃피울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1940년 4월 28일



1946년 4월 29일

최선화는 인천 출신, 양우조는 인천 방직회사 근무

<제시 이야기>의 원작인 <제시의 일기>를 쓴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부부는 1937년 백범 김구 선생의 주례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임시정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지식인이었다. 평양에서 성장한 양우조(1897~1964)는 19세에 상하이로 망명했다.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의 도움으로 20대에 미국 유학 길에 오른 인재로 31세에 귀국했으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혈벗은 동포들을 먹고 입히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1929년 상하이로 다시 망명, 독립운동에 합류했다. 독립 쟁취에 필요한 사상집을 번역했는데 쑨원의 <삼민주의>도 그중 하나다.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자금을 모으고, 유학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외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또 민족 진영 인사들과 함께 한국독립당 결성을 추진했다. 미국 유학 당시 방직공학을 전공한 양우조는 일본이 패망하자 귀국해 1947년 인천 제마방직회사와 조선방직협회의 이사로 활동했다.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전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최선화는 모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양우조와 결혼하기 위해 1936년 상하이로 건너갔다. 임시정부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한 그는 임시정부 가족의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한글학교를 운영하며 독립운동가인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서 나아가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을 모색했다. 이후 한국애국부인회 재건준비위원 및 서무주임(총무)으로 활동했다.

양우조는 1964년, 최선화는 2004년에 작고하였으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귀한 증거들이 들어 있기도 한 <제시 이야기> 속 주인공 제시는 2010년 9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양우조·최선화 부부의 외손녀이자 제시의 딸로 <제시의 일기>를 정리한 김현주는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학교 교장을 지내며 한국 비하 발언과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됐던 일본 작가 가와시마 요코의 자전적 소설 <요코 이야기>(2005)를 바로잡기 위해 <제시 이야기>를 미 교육국 공식 도서로 지정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만화가 박건웅은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를 만화의 한 유형이지만 소설처럼 길고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그래픽 노블로 옮겨 극적인 ‘흑백 장편영화’ 한 편을 만들어냈다.



24시간 365일 ‘안전특별시’



인천은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다.
118개 나라, 342개 도시 가운데 당당한 1위. 우리 시가 그 명성에 걸맞은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안전특별시’로 거듭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해당 지역의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한 번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진은 연수구 ‘U-도시통합운영센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교토, 시드니, 싱가포르도 아닌 바로 인천이다. 인천은 지난해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범죄 안전도 평가에서 안전 지수 90.89, 범죄 지수 9.11을 받아, 118개국 342개 도시 가운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다. 작년 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도 양호한 편이다. 인천은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3개 부문에서 2등급을 기록했다. 우리 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최첨단 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시 곳곳에 안전영상 CCTV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을 지킨다. 시가 민선 6기 3주년 및 재난안전본부 출범 2주년을 맞아,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구축한다. 300만 인천 시민 모두 마음 놓고 사는 ‘안전특별시’가 우리의 목표다.

CCTV 구축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안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의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 이들 범죄는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CCTV는 범법 행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탁월한 범죄 해결사. 시는 2006년부터 연수구를 시작으로 120억 5천200만 원을 들여 인천 전역에 CCTV 5천402대를 설치했다. CCTV는 우범·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3천 539대, 도시공원 내 836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1천27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비 10억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들여 10개 군·구에 CCTV 2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점차적으로 오래된 저화소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할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뛰어봤자 인천 손바닥 안

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CCTV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92억 원을 들여 8개 군·구(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급상황 시 현장에서 비상벨이 작동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위치를 파악, CCTV를 통해 사고 현장을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이 첨단 시스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가 일사천리로 이뤄진다. 시는 내년 32억 원을 들여 동구와 옹진군에 통합관제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1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잠들지 않는 최첨단 안전망

시는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재난 콘트롤타워로 24시간 365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시는 올 3월부터 12월 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ICT 기반의 재난 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의 재난신고·접수창구(☎ 440-1888)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소방과 재난안전도 하나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소방본부 내 119종합방재센터와 재난안전본부는 교차 근무 체제로 각종 시스템의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또 기상청 등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군·구와 핫라인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향후 현재의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관제형 재난안전상황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

- 1.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설치된 비상벨. 위험 시 누르면 통합관제센터로 바로 연결된다
- 2. 3. 응급 상황 시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의 SOS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와 경찰에 바로 연결된다.

키즈폰 '바다라' 보급
SOS버튼 누르면 바로 출동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시는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를 보급한다. ‘바다라’는 인천의 ‘바다’와 전화를 ‘받아라’를 더한 뜻. 시는 10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 6천500명에게 ‘바다라’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통신비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비와 통신비 35%는 SK텔레콤이 부담하고, 통신비 65%는 시가 지원한다. ‘바다라’는 위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72시간의 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터치 한 번으로 보호자와 경찰에 응급호출을 보내고, 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위치정보와 인근 CCTV 화면을 전송한다. 통화 내용도 녹취할 수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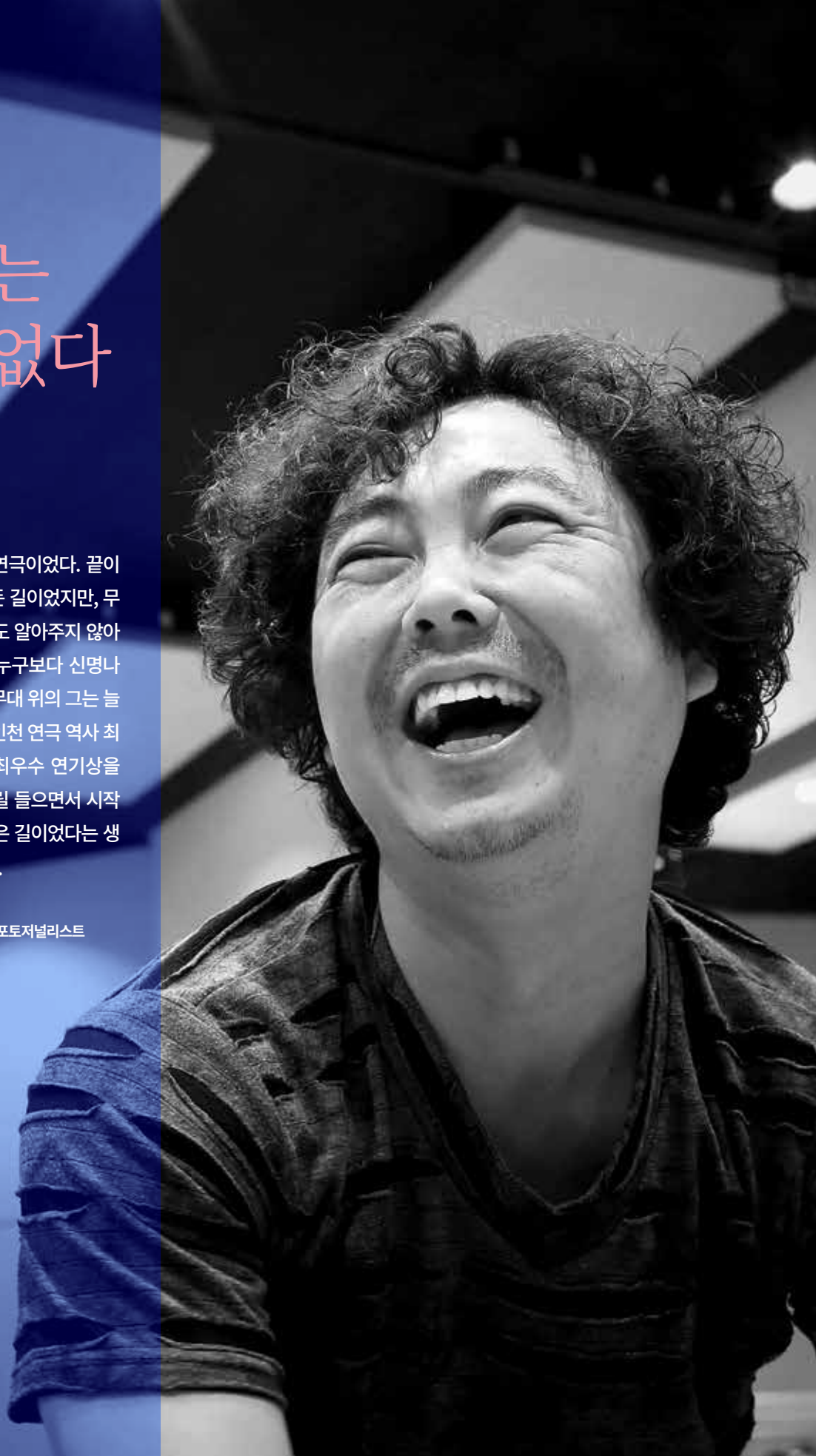
안심 앱 '어디 GO' 보급
더 스마트하게, 더 안전하게

시는 노인과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어디 GO'를 개발해 보급한다. 안심 앱 '어디 GO'는 인천 전역 CCTV 5천402대 및 군·구 통합관제센터와 하나로 연결된다. 사용자가 설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을 울려 위험을 알린다. 다른 앱보다 위치 추적의 정확성이 높고, 지진 등 긴급재난 사항을 긴급공지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올 하반기부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냥 가는 시간은 없다

무대가 좋아 무작정 시작한 연극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무대를 떠날 수가 없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다. 무대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신명나게 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 위의 그는 늘 반짝반짝 빛났다. 그런 그가 인천 연극 역사 최초로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미친놈’이라는 소릴 들으면서 시작한 연극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길이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작품, ‘워낭을 찾는 사람들’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기대나 예상은 전혀 못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구요. 수상소식을 전화로 아내한테 전했는데, 아내도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인천의 연극배우 이병철(45) 씨. 극단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활동 중인 그는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선보인 작품 ‘워낭을 찾는 사람들’을 연기하는 내내 아버지가 떠올랐다고 한다.

‘워낭을 찾는 사람들’은 구제역으로 피해 받는 농민과 소, 돼지의 살처분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애환을 담은 작품. 그는 극중에서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기수 역을 맡았는데, 가장 친한 친구 용우가 소를 강제로 죽이는 방역본부에서 일하는 바람에 내·외적으로 갈등과 고뇌를 겪는 인물로 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극중 용우 아버지도 가족처럼 키우던 소를 살처분으로 잃고, 그 일로 죽음에 이르게 돼 갈등이 고조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적에 꽤 많은 돼지를 키우고 계셨는데, 돼지 콜레라로 돼지를 모두 강제 살처분당하고, 그 충격으로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연기하는 내내 그런 아버지가 생각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분노에 차 낯을 들고 방역본부에 쳐들어가려는 장면에서 기수를 맡리는 용우 때문에 주저앉은 그와 관객들은 모두 함께 울었다.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시작한 연극

“연극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배우가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3남 2녀 중 막내였던 그가 스물이 되던 해 돌연 연극을 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극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매형이 극단 ‘공감’의 정주희 씨를 소개시켜줬다. “매형이 정주희 선생님의 동생이었어요. 저의 연극을 지지해준 게 아니라, ‘연극바닥이 얼마나 힘든지, 너 어디 고생 한 번 해봐라’하고 소개해준 거였습니다.”

1994년, 그렇게 그는 극단 ‘공감’에서 배우이자 은사인 정주희 씨를 만나 10년간 연기를 배웠다. ‘한두 번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한 정주희 씨도 지독한 생활을 버텨내는 그를 보고 “독한 녀석이 연극판에 들어왔다.”며 본격적으로 연기지도를 해줬다.

화제의 인물

대한민국 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이병철

“길고 험난한 마라톤 레이스 같은 연극을 감당할 수 있으면 시작해라.
하지만, 완주할 자신이 없다면 관객으로서 박수를 많이 쳐달라고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열악한 연극 환경에 금세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처음부터 후배들에게 마음을 다 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연극인의 길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 가족들의 반대도 여전히 거셌다. 닭 도매업을 했던 큰형이 IMF로 사업이 망해 세상을 뜨고, 어머니마저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도 오로지 연극연습에 열심이었으니 가족들의 반대는 당연했던 일. “밤에는 어머니 간병을 하고, 낮엔 내내 연극연습만 했으니 제가 곱게 보일 리 없었겠죠. 작은형은 집안이 이런데 계속 연극할 거냐고 ‘미친놈’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막내인 저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셨습니다.”



연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병철 씨.
관객과 소통하는 연극무대의 매력은 경험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아내와 딸의 응원이 가장 큰 힘

연극에 ‘미친’ 그도 잠시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물질적으로 궁핍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도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다.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위낭을 찾는 사람들’에서 용우 역을 맡았던 손인찬 씨. “외로운 길, 함께 가자.”라는 말에 다시 용기를 냈다. 연극연습이 없는 시간엔 노점을 하고, 방 송국 단역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지난 2010년 인천연극제 신인연기상 수상을 시작으로 여러 단편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와의 연애시절엔 근사한 레스토랑 대신 동료들의 연극을 공짜로 보는 것으로 데이트를 대신했다. 42세에 결혼한 그는 아내와 조그만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예쁜 딸을 키우는 가장이 되었다. “딸이 지금 다섯 살인데, 연극연습에 종종 따라나섭니다. 연습 들어가면 조용히 있다가도 쉬는 시간엔 뛰어놀고... 연극판의 분위기를 알더라고요. 딸이 아빠를 따라 연극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무대 위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숨소리 하나하나, 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관객과 함께 울고 웃는 카타르시스는 무대에 서보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연극을 할 겁니다.”



연극의 저변 확대와 관심이 필요

그는 연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 배우들이 마음 놓고 연극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 연극을 하겠다고 왔다가 힘든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만두는 후배들을 보면 아쉬움이 앞선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도 인천에는 열정 넘치는 배우들이 대사를 외우고,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작품 하나를 올리기가까지 돈과 인력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안타깝다는 그는 “대학로까지 안 가도 인천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연극을 볼 수 있는데 관심이 적어 속상하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문화계도 시민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주신다면 배우들도 신이 나 더 뛰어난 연기를 선보일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인다. “그냥 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늘 노력하고, 하나하나 차곡 차곡 쌓아가야 하는 거죠. 항상 연극배우라는 자부심을 활력 삼아 관객들에게 다양한 캐릭터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극인 이병철 씨의 공연이 보고 싶다면?

가족극 ‘웅진군 웅진골 웅고집 이야기’

일시 : 8월 18~20일(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 다락 소극장

티켓 : 성인 1만 원, 어린이 5천 원,
가족특별할인(어른 1명+어린이 1명) : 1만 원

관람연령 : 10세~성인

문의 : 다락 소극장 ☎ 777-1959

흙에서 찾은 인천의 옛 흔적

발굴. 땅속에 묻혀 있던 옛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이다.
발굴을 통해 그들이 사용했던 삶의 도구들이 출토되며,
이를 토대로 비어 있던 역사의 조각들이 맞춰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복원해내는 학문을
고고학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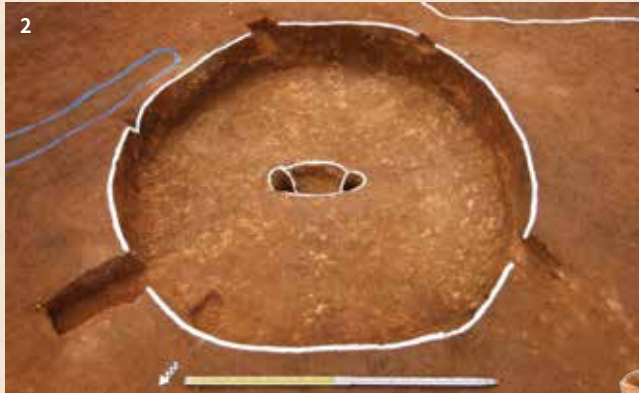
글 배성수 시립박물관 컴팩스마티시티부장 사진 인천시립박물관

중학교 다닐 때 나의 꿈은 고고학자였다. 이제는 할 아버지가 되어버린 해리슨 포드가 카우보이 모자에 채찍을 차고 등장하는 영화 ‘레이더스’를 보고 나서부터다. 주인공 인디애나 존스의 직업은 고고학자로, 세계를 누비며 고대 유적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 없었다. 존스 박사의 활약은 고등학생 때 개봉한 속편 ‘인디애나 존스 2’에서도 계속되었고, 고고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에 진학해서 보았던 ‘인디애나 존스 3’에서도 여전히 존스 박사의 모험이 이어졌지만, 영화가 주는 감동은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 영화 자체의 재미가 떨어진 까닭도 있겠지만, 답사나 견학을 통해 다녀본 발굴현장은 영화 속 그것과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발굴현장은 보물이 숨어있을 것 같은 동굴이 아닌 피약별 논바닥이었고, 발굴에 참여한 조사원들은 카우보이모자와 채찍 대신 시골 농부의 밀짚모자에 모종삽과

호미를 들고 있었다. 땅속에서 캐낸 유물은 황금빛 보물은커녕 불품없는 토기 쪼가리들이었다. 학과에 고고학 교수님이 안 계신 탓도 있었지만, 아무튼 고고학자가 되겠다는 나의 꿈은 그렇게 시들해져만 갔다.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박물관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문학산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에 잠시 참여한 적이 있다.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 앞서 실시한 발굴조사였다. 학예사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일주일 남짓 현장에 나갔을 뿐이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느꼈던 발굴 현장의 모습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영화에서 보았던 긴장감도, 대학 때 느꼈던 초라함도 아니었다.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삽과 붓으로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며 유물을 캐내는 조사원들의 모습은 한없이 진지했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토기 쪼가리는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청동기시대부터 문학산 주변에 사람이 살고



1.구월동 유적 전경
2.구월동 유적 청동기시대 원형 집 자리
3.구월동 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알려주는 생활의 흔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후손이 훗날 비류가 터를 잡았던 미추홀의 원주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고고학자의 꿈을 접고 책상에서 옛 기록을 뒤지던 나에게 당시의 발굴 현장은 영화 속의 모험이나 흥미진진함은 없었지만, 먼 옛날 삶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내는 뜻깊은 과정으로 다가왔다.

올여름 인천 유일의 선사박물관인 검단선사박물관에서 발굴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연다고 한다. 해마다 개최해왔던 인천 지역 발굴 성과전의 일환으로 올해는 지금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선 구월동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을 처음 공개한다. 구월동 유적은 서해에서 유입되는 승기천 갯골을 사이에 두고 문학산 유적과 마주보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으로 당시 문학산에 터를 잡았던 사람들의 생활범위가 구월동 일대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41개의 집 자리가 발굴되어 지금껏 인천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월동 유적뿐만 아니라 강화군 하점면의 신봉리·장정리 유적 등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에서 발굴 조사된 주요 유

적과 함께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도 함께 전시한다고 한다.

한때 고고학자를 꿈꾸었던 사람에게 발굴을 주제로 한 전시는 반갑기 그지없다. 내가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를 보면서 고고학자를 꿈꾸었던 것처럼 전시를 관람하면서 고고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그들 중 누군가 훗날 발굴현장을 누비는 멋진 고고학자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혹시 모를 일이다.

검단선사박물관 기획특별전 흙에서 찾은 인천의 옛 흔적

일시: 7월 25일(화) ~ 10월 29일(일)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 440-6795



CULTURE
CALENDAR

08月

08.

2017 썸머페스티벌
루체뮤직 소사이어티의
<발레모음곡>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09.

2017 썸머페스티벌
코리아콥오케스트라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10.

인천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1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회 차세대 지휘자 데뷔
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제1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와이즈발레단 김길웅 단장이
들려주는 <Hello, 발레!>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천 원
☎ 505-5995

상주단체 공동기획
우수 레퍼토리1 아동극
<이야기 하루>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7시
전석 2만 원
☎ 580-1155

12.

2017 썸머페스티벌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출발! 팔도민요여행>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The voice of <만땅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13.

2017 팝 콘서트
<웨스트윈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873-7772

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무료(선착순 인터넷 접수)
☎ 440-2528

18.

The Latin Factory Concert
<라틴팩토리>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19.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2시
전석 1만 원
☎ 500-2000

2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8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2만 원
☎ 1588-2341

2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2만 원
☎ 1588-2341



커피콘서트VI
즉흥음악 앙상블 블랙스트링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

평화의 콘서트
스페인말레니엄합창단
초청 내한공연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500-2000

24.

어린이뮤지컬 <매직 신데렐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 1천 원
☎ 891-7779

25.

어린이뮤지컬 <매직 신데렐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전석 1만 1천 원
☎ 891-7779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好樂好樂-호락호락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26.

2017 정동하 콘서트
<THE ARTIST : 소리>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 11만 원, R석 9만 9천 원,
S석 7만 7천 원
☎ 1600-1563

제3회 라온피아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434-7333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미쓰고 밴드 <추억의 7080>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27.

조영구와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R석 5만 원, S석 3만 원
☎ 010-8720-5964

제3회 미추홀 청소년 무용단 정기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30분
무료
☎ 765-0250

29.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콘서트
<활짝평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 원
☎ 423-9708

권윤덕 작가와 함께하는 <꽃 할머니>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30.

8월 감성 데이트
콘서트 <국악인
유은자-우리의 소리>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580-1166



이달의 展

제24회 한·중 서예 국제 교류전
8월 1일~8월 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에 날아온 새
8월 17일~8월 30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10회 목우 정기호 서각전
8월 1일~8월 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우리들의 이야기 1987
8월 22일~8월 28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그룹 <1279>전
8월 1일~8월 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박승우 개인전
8월 22일~8월 28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이춘자, 가지 않은 길에 서서
8월 2일~8월 10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남동구사진가연합 사진전
8월 22일~8월 28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2017 인천현대수채화전
8월 12일~8월 2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사진으로 보는 인천의 섬
8월 22일~28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인천 도시 숲 사진전
8월 15일~8월 2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두정희(김찬화·이현숙), 낮선 일상
8월 17일~8월 30일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문화 포커스

착한 문화를 나눠요! 트라이보울 플리마켓

8월 26일,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트라이보울에서 플리마켓이 열린다. 플리마켓은 오래된 물건이나 중고 용품을 직접 사고파는 벼룩시장으로, 인천문화재단은 여기에 공연과 작품 전시 등 문화예술을 더해 운영하고 있다. 작은 갤러리, 아트 마켓, 체험 워크숍, 아이들 시장, 버스킹 등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수익금의 일부는 봉사 동아리 ‘재능나누리’를 통해 기부될 예정이다. 착한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플리마켓. 이곳에선 참여가 곧 나눔이 된다.

장소 :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보울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
일시 : 8월 26일(토) 오후 2시~8시
문의 : ☎ 760-1097 / www.tribowl.kr



NEWS BRIEF



환황해권 경제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난다



정부가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지역 공약 8개를 담았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나타났다. 인천 공약으로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남동·부평·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

업단지 조성이 포함됐다. 또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미군 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인천 공약으로 제시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공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133

광역버스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전방 추돌 경보와 차선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첨단안전보조시스템(ADAS)이 인천 광역버스에 설치된다. 우리 시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다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버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ADAS를 인천 광역버스 255대 전체에 설치하기로 했다.

1대당 설치비 60만 원 중 80%인 48만 원은 시와 버스공제조합이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버스회사가 부담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ADAS 설치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교통정책과 ☎ 440-3855

수도권 5개 시·도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우리 시는 4개 시·도와 함께 지난 7월 6일 태국 치앙마이와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동남아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소개와 여행 취향에 따른 테마별 수도권 여행코스, 수도권 5개시·도 125개소의 할인 혜택이 담긴 코리아투어카드, 환영 공연과 경품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각 지역의 관광지를 각자 홍보하던 기존 설명회와 달리, 한국의 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공동 콘텐츠를 올해 신규로 제작해 함께 마케팅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의 2017년 간사 도시인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수도권 트래블 가이드를 제작하고, 외국인 전용 관광지 할인 카드인 코리아투어카드의 제휴업체를 기존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 5개 시·도 125개 제휴처로 확대해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69



셋째 이상 영유아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우리 시는 지난 7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영유아(만 3~5세)를 관내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부담 보육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만 3세는 7만4천 원, 만 4~5세는 6만 원이며, 기존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은 관할 주민센터에 보육료 신청 및 어린이집 입소 시 셋째 아이임을 증빙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 440-2894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특화단지 조성 추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집적화한 ‘GCF 특화단지’를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 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조만간 ‘글로벌그린경제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용역연구는 GCF 사무국이 입주한 송도 G타워 주변에 GCF 인증기구와 연구소, 환경 분야 기업, 기후과학관·에너지체험관 등을 한데 모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된다. 문의 : 시 녹색기후과 ☎ 440-8587

서해5도 여객선 운임 내년부터 80% 할인

인천시민이라면 내년부터 2만 원대 왕복 요금으로 서해5도를 오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시는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인천시민을 위한 여객선 운임 할인 폭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 항로는 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 등 서해5도를 포함한 11개 항로 14척 선박이다. 한편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 주민은 현재처럼 인천시와 웅진군의 지원으로 서해5도 왕복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해양도서정책과 ☎ 440-5053



계산동에 종합의료단지 세운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가 201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18일 착공했다.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 21,926㎡ 규모로 들어서는 계산의료단지는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을 갖출 예정이다. 사업비는 기반시설 공사비 99억 원, 건축물 건립비 900억 원 등 총 999억 원으로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 440-4652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

우리 시는 지난 7월부터 인천대공원에서 반려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주인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목줄 미착용 행위 외에도 여

름 휴가철을 맞아 전동휠 운행, 오토바이 출입, 지정장소 이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대공원사업소 ☎ 440-5866

해양박물관 타당성 조사 신청...
2024년 개관 목표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거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올해 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이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 3개 분야에 걸쳐 6개월 이상 진행되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 시는 국비 1천315억 원을 들여 인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국립해양박물관을 짓고 2024년 개관하는 일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시 항만과 ☎ 440-4848



시민 참여한 ‘인천의 노래’ 제작...
10월 공개

우리 시는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인천의 노래’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5곡과 기존 인천의 노래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5곡 등 총 10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인천의 노래 가사 공모에서는 400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0%(320곡)는 인천시민이 참여했다. 신진 음악가들이 만든 곡에 가사를 붙인 새로운 ‘인천의 노래’는 10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도시가스 없는 농어촌에 LPG 공급 사업 추진

우리 시와 강화군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LPG를 공급할 LPG 저장 탱크를 지역 최초로 준공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 12곳에 LPG 소형저장 탱크를 설치해 LP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강화군 불은면 고능1리가 가장 먼저 선정됐다.

시는 올해 강화군 9개 마을과 옹진군 3개 마을에 국비 4억5천만 원·시비 21억9천600만 원을 들여

LPG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343



화물공영주차장 확대

우리 시는 화물공영주차장 확대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계양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계양구 용종동 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종동 화물공영차고지는 오는 2020년까지 3만1천70㎡ 부지에 180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계양C 화물공영차고지는 2013년 9월 19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공사가 완료되면 총 37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며, 서구 원창동 일원에 조성 중인 화물주차장 공사는 오는 9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택시화물과 ☎ 440-3832

인천택시, ‘all_ways_Incheon’
새 옷 입는다

우리 시는 내년까지 모든 택시에 인천의 도시 브랜드(BI)인 ‘올 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을 부착시킨다. ‘all_ways_Incheon’은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상의 길을 잇고, 너와 나의 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까지 8천87대(인천콜, 세븐콜)의 택시에 도시 브랜드를 부착시키고 내년까지 1만5천대 모든 택시에 인천시의 새 BI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문의 : 시 택시화물과 ☎ 440-38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책’ 우수기관 선정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공공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와 기업의 투자유치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8만5천75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

굴했다. 또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시 일자리정책과 ☎ 440-4233

IMAGE
NEWS



6월 기준, 올해 **#인천 섬 방문객 50만 명 돌파!**
최초 100만 명 돌파를 향해 고고~



#샌드아트전으로 예술적 감성 충전
#섬마을 밴드 음악 축제로 덩실덩실
#섬 웨딩마치로 블링블링



#영종도, 강화도, 무의도는 기본
인천판 모세의 기적 **#목섬**과 거대한 고래 등을 닮은 신비한 **#풀등**까지



인천 시민 **#서해 5도 운임 60% 할인**
#2017년부터 80% 할인 추진
#군장병 면회객은 70% 할인된 가격에 모실게요~



COUNCIL NEWS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의회와 우호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7월 17일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의회와 ‘우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베트남 경제수도로 꼽히는 호치민과의 교류 방안과 경제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와 호치민시가 지난 5월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호치민시 인민의회 초청으로 이뤄졌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의 의장은 “지난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양국의 무역 규모는 70배나 증가할 정도로 경제협력 규모가 해마다 급성장했다.”며, “호치민에 인천 기업·기관들이 진

출해 양 도시의 상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호치민시 인민의회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호치민시 인민의회 측도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인천항과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경제자유구역을 지닌 인천시가 아세안 무역시대의 주역으로 꼽히는 호치민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현재 호치민시 등 베트남 남부지역에는 2천 700여 개의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호치민시에 집중돼 있다.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업무계약 체결

인천시의회의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지난 7월 14일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지부를 방문, 저출산 문제 해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지부는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캠페인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 관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병건 사·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출

인천시의회의 공병건 운영위원장이 전국 사·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사·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7월 6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된 제7기 후반기 전국 사·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공 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하반기 제2대 협의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공 사무총장은 “전국 사·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정당이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17개 사·도의회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의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한국폴리텍 II 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신한은행, 경인교대, 한림병원 등 현재까지 총 21개 기관 및 단체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인천시의회의 의원 5명 ‘우수의정 대상’



인천시의회의의 정창일, 김진규, 유일용, 오흥철, 최만용 의원이 지난 7월 17일 대전 ICC 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선 정창일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내 능허대중학교 신축 개교, 광역버스 확충, 송도소방서 신설 등

글로벌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위상 정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규 의원은 검단지역에 마전도서관, 검단노인복지회관 신설,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증축,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확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복원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 유일용 의원은 인천시와 베트남 호치민시 자매결연 추진과 비행기 티켓에 ICN이 아닌 INCHEON 표기 추진 등을 비롯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장기 침체됐던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흥철 의원은 인천항권역 발전조례안 발의, 인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민생법안에 대한 적극적 입법활동과 함께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서창2지구 초등학교 추가 건립, 남동구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최만용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 조 기착공과 미산초등학교 유휴지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조기건립을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반대하는 인천통합 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 관련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 위촉



인천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안전본부장으로부터 집중호우 관련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배수펌프장 극장 가동 및 재난대응메뉴얼에 의한 대처 여부,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으며, 향후 동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계획 점검

인천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안전본부장으로부터 집중호우 관련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배수펌프장 극장 가동 및 재난대응메뉴얼에 의한 대처 여부,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으며, 향후 동일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복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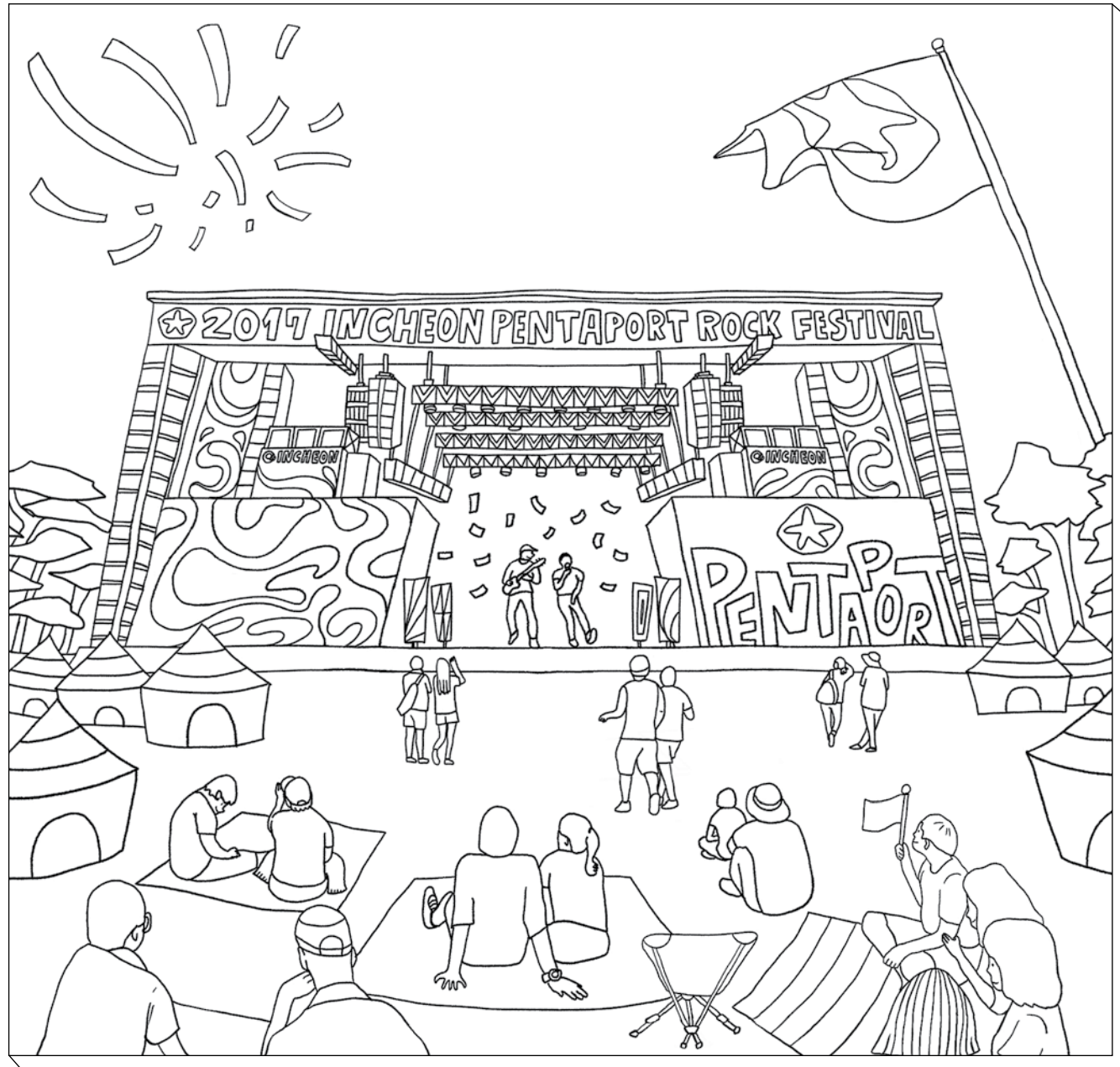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여러분만의 빛깔로
인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

전 세계의 젊음이 한데 모여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다시 한번 인천을 달굽니다.
모두 함께 외쳐, “로~큰~롤~ 베이비~!”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브랜드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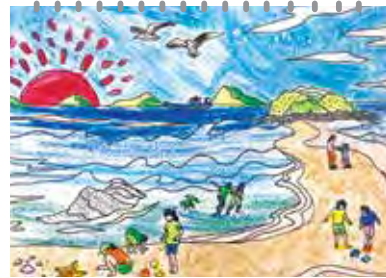
기간 : 2017년 8월 20일까지 / 문의 : ☎ 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굿모닝인천> 7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입니다.



김채영 남동구 구월동



남규리 남구 경원대로



김유리 남구 소성로



피기연 계양구 계양대로



이지은 부평구 부일로

보고싶다 <굿모닝인천> 듣고싶다 ‘시민의 목소리’

1994년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굿모닝인천>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 설문 조사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주세요.

성별 : (남 / 여) 연령 : (세)

Q1. <굿모닝인천>을 접해 본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우편 배송
- 2)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 3)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
- 4)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 5)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
- 6) 기타()

Q2. <굿모닝인천>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의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인천의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 2) 시민 대상 시 주요 정책 공유 매체
- 3) 시민 대상 시정 활동 홍보 매체
- 4) 시민 대상 시정 성과 전파 매체
- 5) 문화, 생활, 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Q3. <굿모닝인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Q4.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 2)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 3)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 4) 기타()

Q5.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 1) 매우 좋아졌다
- 2) 대체로 좋아졌다
- 3) 특별한 변화가 없다
- 4) 대체로 안 좋아졌다
- 5) 매우 안 좋아졌다

Q6. <굿모닝인천> 발행 형태는 오프라인(종이
책)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 1) 오프라인(종이책)
- 2) 온라인(이북, 웹진)
- 3) 오프라인(종이책) 중심 온라인(이북, 웹진) 동시 발행
- 4) 온라인(이북, 웹진) 중심 오프라인(종이책) 동시 발행

Q7. 문항 Q6의 답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Q8. 향후 <굿모닝인천>에서 추가/보강되었
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후

1) 우편 또는 2) 홈페이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후 사진파일첨부/또는직접가제)로 접수하세요.

보내는 방법은 좌측 페이지 하단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응모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8월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안내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휴식과 같은 시간이 되어줄 인천대공원 ‘산림 치유 프로그램’
8월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회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대 상	일 시	예 약
누구나 숲	산림 치유 체험	일반 성인	화~금요일 오후 2시~4시	인터넷 선착순
자키미 숲	직무 스트레스 완화, 자존감 회복	직장인 동호회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인터넷 선착순
스스로 튼튼 숲	심리적 안정, 치매 예방	65세 이상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인터넷 선착순 단체(전화 접수)

[회기성(연속)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대 상	일 시	예 약
가족 모여 숲	숲 활동을 통한 가족 소통	가족	8월 12일~9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4시	인터넷 접수 및 상담 후 확정
다시 피어나는 숲	갱년기 여성의 우울감 완화	갱년기 여성 (45~65세)	8월 9일~9월 29일 수요일 또는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인터넷 접수 및 상담 후 확정

예약 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인천대공원사업소 홈페이지 견학/체험 및 대관 예약(인천대공원사업소 운영 견학/체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견학/체험)

문의 : ☎ 440-5882, 5887 / 인천대공원 홈페이지(grandpark.incheon.go.kr/posts/931)

※ 체험일로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Tour de DMZ 2017 강화 자전거투어’ 대회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Tour de DMZ 2017 강화 자전거투어’
대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9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장소 : 강화도, 교동도 / 강화도~교동도~강화도 도로순환(70km)

*개회식/시상식장 : 강화도 아시아드 경기장

참가규모 : 동호인 및 일반 참가선수 1천여 명, 지역주민 00명(축하행사 등)

시상 : 총상금 12백만 원, 개인메달, 단체트로피 (16부분 3위 내 입상)

*개인전(나이 및 남녀 구분) 7, 단체 1 / MTB·ROAD 구분

참가신청 : bikelifc.cycling.or.kr

참가비 : 3만 5천 원/인 (참가기념품-강화상품권 2만 원 상당)

문의 : 대한자전거연맹 ☎ 02-420-4247~9

인항야간학교 2017년도 가을학기 초·중·고등학생 모집

늦깎이 어르신들이 문맹을 벗어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인천 시민 모두의 배움의 장소인 인항야간학교에서 2017년도
가을학기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 : 초·중·고등 과정 각 1년 수료
(초등 과정은 한글반과 병행 지도)

모집 인원 : 남녀 00명(연령 제한 없음)

수업 시간 : 월요일~금요일(오후 6시 30분~9시)

원서 접수 : 9월 20일(수)까지

모집 특전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등본 1부, 여권 사진 3매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23-19(송월동 3가)

문의 : ☎ 772-4061 / www.inhyang.net

※ 평일 오후 2시 이후 접수,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여름방학 캠프 참가자 모집

학업과 가족 관계, 대인 관계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아닌 대안 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여름방학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 스마트 씬이 필요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모집 인원 : 15명(초등 10명, 중·고등 남학생 5명)

운영 기간 : 8월 10일(목)~8월 12일(토)

신청 기간 : 8월 4일(금)까지 선착순 마감

결과 통보 : 8월 7일(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비용 : 무료

장소 : 인천도화초등학교(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숙박)

문의 : ☎ 725-323 / shiver@nia.or.kr

제6회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인천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구수요 발굴을 위해 제6회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내용** : 다음 지정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안
1. 월미도-작약도-영종도(구읍베타, 영종진, 씨사이드파크)를 연결하여 해당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2.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주변 공간을 문화도시로 재생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3.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아이디어
 4. 기타 인천가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기간 : 9월 15일(금)까지 [60일간]
접수방법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서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curator1@idi.re.kr)로 제출
결과 발표 : 10월 하순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 게시
포상 : 최우수 1명 상품권 100만 원, 우수 5명 상품권 각30만 원, 장려 5명 상품권 각10만 원
문의 : ☎ 260-2624

인천시 색채발굴을 위한 ‘인천 토박이 시민’을 모집합니다

우리 시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인천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을 위한 인천 토박이 시민 모집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합니다.

모집 대상 : 인천이 본관인 성(姓)씨를 가진 분
선조의 최초 정착 지역이 인천인 분
3대 또는 4대 이상 인천 거주자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인천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

신청 기간 : 8월 11일(금)까지
신청 방법 : 이메일(incheonpd@naver.com) 접수
문의 : 시 도시경관과 ☎ 440-4794

연수문화원 ‘2017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

연수문화원에서는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를 체험하고 삶의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2017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색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일시 : 8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 청학동 성호공원(성호아파트 옆)
공연팀 : 김홍철과 친구들-요들송
문의 : ☎ 821-6339

2017년도 <수요다과회>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컴팩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수요다과회 ‘인천 사람의 서울 푸드’가 개최됩니다.

일시 : 8월 30일(수) 오후 7시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세미나실
주제 : 광신제면의 쫄면
대상 : 성인 3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8월 21일(월)~8월 28일(월)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 ☎ 850-6026



길 잃은 새야, 소청도에서 잠시 쉬었다 가렴



회색머리노랑딱새(가칭)
학명 : *Culicicapa ceylonensis*
사진 출처 : © 국립생물자원관 박진영



갈색지빠귀(가칭)
학명 : *Turdus feae*
사진 출처 : © 국립생물자원관 김동원

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지칭하는 서해 5도. 이중 소청도는 가장 작은 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이 살아 숨 쉬는 수십억 년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섬이다.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3시간 반을 달리면 도착하는 소청도.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시간보다 길지만, 기다림이 크면 감동도 큰 별. 푸른 바다 위 하얗게 솟아있는 분바위와 기이하지만 아름다운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흰색 석회암이 높은 압력을 받아 대리석으로 변한 분바위는 하얀 분을 바른 여인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남조류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에 생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땅의 기록을 보여준다.

소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를 찾는 다양한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지난 4월과 5월 소청도에서는 국내 미기록종 조류 2종(회색머리노랑딱새, 갈색지빠귀)이 관찰되기도 했다.

회색머리노랑딱새는 중국 남서부지역부터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폭넓게 분포하는 종이다. 솔딱새과에 속하는 조류로 중국 남서부에서는 여름철새이며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텃새로 분포한다. 몸길이는 12~13cm 정도이며 머리와 가슴은 회색, 몸 윗면과 날개, 꼬리는 밝은 녹색이다. 건조한 활엽수림에 주로 서식하며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다.

갈색지빠귀는 중국 북동부 허베이성, 산시성과 베이징의 1천~1천900m 고도의 산악 산림지대에서 번식하며 태국 북서부, 미얀마, 인도 북동부의 고지대 숲에서 월동한다. 몸길이는 24cm 정도이며, 암수 모두 몸 윗면은 갈색이고 아랫면은 회색이다. 번식지와 월동지의 산림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이 새들처럼 미기록종들은 방향감각 이상이나 기후변화에 의한 서식지 확장 등 여러 이유로 원래의 분포지역이 아닌 곳에서 새롭게 관찰되는데, 이런 종류들을 ‘길 잃은 새’로 부른다. ‘길 잃은 새’와 수많은 철새들이 먼 거리를 날아가는 도중에 소청도에 들러 배를 채우고 다시 날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와 신비한 암석, 쉬어가는 새들을 만날 수 있는 소청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같거나 다르거나, 그러나 특별해야 할...



글 **이종복**(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대표)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드렸다. 살빛이 감도는 옅은 입술에서 새어나오던 진동은 어슴푸레한 작은 공간을 규칙적인 계승으로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의 뱃속을 나온 이래로 방을 달리 쓰기 시작했던 열다섯 살 무렵까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막내인 내가 이정도 느꼈을 정도면 다섯 분의 형님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는 평생 기도 속에서 지내셨던 것 같다. 임종 직전까지 한 손에 묵주를 꼭 쥐고 계셨던 것을 보면 말이다. 그래서 내게 어머니의 존재는 자아성찰의 잣대이자 출생의 물리적 시간을 처음 제공한 터전, 그 이상의 존재로 각인돼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장은 내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해가 들면, 햇별이 들이닥칠까 누르스름한 광목으로 만든 차일에 새끼줄 매달아 이웃이 엮어 놓은 꼬내끼에 걸 다리로 틀어 묶었고, 해가 저물면 흐릿한 알전구 한 개씩 머금었던 허술한 외등과 낡아빠졌지만 강렬했던 간판들이 여전히 동공에 아른거려기도 했다. 비닐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전천후 다용도로 사용했고, 쇠기둥에 두툽한 장막을 씌우던 이른바 현대화된 포장들이 한때를 장식했다는 것도 시나브로 기억해 내고 있었다. 요즘 최신의 아케이드 형태로 시장 전체를 도포해 버리는 상황을 보면, 옛 그림에 대한 향수는 아스라한 천장 모서리의 거미줄처럼 보잘것없이 변해버리긴 했지만, 그 풍모와 추억은 여전히 성장판을 쌓아가고 있었다.

전 생애를 포복하며 살아가야할 영험한 전사처럼, 마치 절벽 같은 세상과의 일전을 앞둔 결연한 모습의 어머니와 시장이 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다. 자식들 잘되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는 주문은 ‘갈음’의 영역이었다. 덕업으로 상권하는 가운데 다양한 품목과 허술하더라도 조목조목 실하게 갖춰 있는 물품들은 시장의 ‘다름’이자 특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 두 존재감에 더해지는 삶의 ‘생동감’과 ‘특별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호환될 수 없는 독자성 때문이란 점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시장은 다른 이름이되 삶 전체를 관통해 내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감히 역설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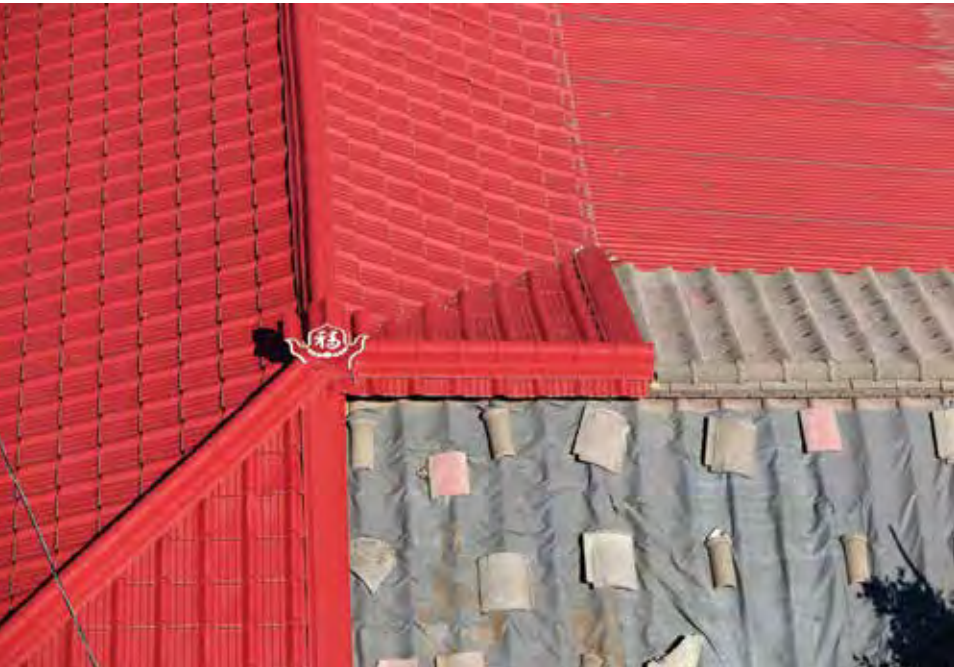
세계의 절반은 어머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절반이 자아성찰의 기준인 셈이다. 지역도 인종도, 믿는 종교와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라는 상징적 이름으로 인류는 공존해 왔던 것이다. 1천600여 개의 시장이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다. 인천에만도 60여 개 시장이 허락된 이름으로 하루하루 절벽 같은 미래를 간신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외양에 비슷한 조건들, 거의 천편일률에 가까운 환경으로 살아가는 딱한 부제에 어찌 어머니라는 이름을 등치시켜 볼까마는, 나의 사념에는 이마저도 주제가 되고 있다. 같은 듯 다른, 재래시장의 특별한 공존은 너무나 독립적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일률적이고 짝퉁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터진개 떡방 5>

그 아버지의 애비가 되기 이전에도 나는/ 떡집 아들이었다./ 떡을 쳐서 키웠고/ 떡을 쳐서 공부를 가르쳤고 세상물정,/ 떡 소리 나게 알게 해 줬으니/ 이 보다 더 큰 공부가 어디 있냐 하시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의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뭉뚱그려 휘갈겨 쓴 짤막한 군사우편,/ 아빠, 떡 먹고 싶어요.(줄시 부분 발췌)

다르게 살고 싶었다. 함께 살아가되 자주적으로,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싶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흙을 밟고 걷다보니 거기에 길이 생겼다. 해방과 더불어 연이은 한국전쟁으로 먹고 살기 녹록치 않아, 마지못해 아버지가 걸었음 흙 두덩을 다시 밟고 보니 길이 생겨났던 것이다. 불신의 인자를 딛고 견고하게 더욱 단단하게 걸어 가라고 채근하는 유전인자를 재발견한다. 제 똘엔 먹을거리가 지천에 깔렸을 법도 한데, 떡 먹고 싶다고 말하는“, 그 놀이 있었다.



가발 쓴 지붕

세월이 가면 집도 머리가 흰해집니다.
술이 열린 지붕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넉넉지 못한 집은 낡은 기와에 그냥 천막을 덮었습니다.
머리를 맞댄 이웃집은 얼마 전 강판기와로 새 가발을 썼습니다.
빨강게 염색한 그 지붕이 마냥 부럽습니다.
‘福’을 써놓은 망와(望瓦)가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 복은 낡은 기와로도 흘러넘칠 것입니다.

- 동구 송림동